

새만금, 첨단기술 · 방위산업을 잇다

전북자치도, 제2차 방위산업발전협의회 · 포럼 개최... 새만금 중심으로 방위산업 혁신 전략 · 실행 방안 논의

전북자치도는 28일 서울 롯데월드 호텔에서 '제2차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및 방위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무인 복합체계와 첨단소재 등 신기술 연구 역량을 집적할 테스트베드를 새만금에 조성해 민·군 상생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통해 첨단기술 융합 테스트베드와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며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원인철 전 합참의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포함해 국방·방산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한항공, 현대로템, LG넥스원 등 방산 선도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자리하며, 전북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는 전북대학교 강은호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으며, △전북 방위산업 육성정책(전북자치도) △새만금 무인드론 실증사업(LG넥스원) △첨단기술 연구시설 구축 계획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방위산업 혁신 전략과 실행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

다. 이번 포럼의 핵심 주제였던 새만금·방산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협의회 위원들은 새만금이 유·무인 복합체계와 첨단소재 등의 기술 실증 수요를 충족할 최적의 장소임을 강조했다. 또한, 민·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

기관과 공동 기획협업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테스트베드 구축을 국가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전북 방위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의회를 기회삼아 민·군 연구역량 집적을 위해 테스트베드 기획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고자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자자체가 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군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워크이션 주제로 정책세미나 열어

전문가 · 시도 발표 통해 워크이션 비즈니스 모델 논의

김성운 박사 "안정적 수요확보 · 정책기반 마련이 관건"

전북자치도는 28일 무주군 티볼 호텔에서 빌더카이저에서 워크이션의 국내외 성공 사례와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광역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워크이션을 통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관광공사, 전국 광역시도 관계자, 문화관광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워크이션 사업 발전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목표는 워크이션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관광객 체류를 늘리고,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있다. 세미나는 중앙부처 워크이션 사업 현황과 2025년 계획 발표로 시작됐으며, 지자체별 워크이션 추진 현황도 소개됐다. 이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운 박사가 중견기업 인사담당자 및 워크이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워크이션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워크이션 사업이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요확보, 참여문화 조성, 신규 워크이션 모델 개발, 정책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워크이션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2023년부터 '전북형 워크이션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1,008명을 모집했으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워크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 기준 서울 시 남부교육청, (주)하이트 아이디 등 101개 기업 1,475명의 고객을 모객, 연말까지 2,000명 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이정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제4회 CEO 지식향연서... 경제 성장 · 미래 위한 혁신비전 제시

김관영 도지사 "백년대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다함께 힘모아 주길" ... 새로운 변화 · 발전 계획 소개하며 현장 의견 경청

김관영 전북지사는 28일 원주문예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4회 CEO 지식향연'에서 강연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CEO와 소상공인들에게 전북 경제 성장과 미래 위한 혁신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신문보존재단, 전주상공회의소, 메인비즈협회, 전주연합회, 전북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자리로, 도내 중소기업 CEO와 소상공인 약 400명이 참석했다. 특히,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교류를 통해 경영혁신과 네트워크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연에는 유희태 원주군수, 김재천 원주군의회 부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군산과 익산에 이어 이번 원주 강연에서도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주제로, 도내 기업인들에게 변화와 혁신, 성장의 방향성을 제



28일 원주문예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7회 전북CEO지식향연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유희태 원주군수, 한종관 전북신문보존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김관영 도지사의 강연을 듣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하며 비전과 희망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회발전 특구 지정, 한인비즈니스 대회 성과 등은 도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미래를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북 경제 활성화

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강연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전북자치도의 경제가 웃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의 백년대계 펼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

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경청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

수소 · 풍력 등 4개 분과 운영 · 분야별 비전 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가 정책·수소·풍력·분산에너지 4개 분과로 나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8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정책분과 및 수소분과 기술교류회'를 개최했으며, 29일에는 '풍력분과 기술교류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류회에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 분과별 참여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비전과 전략, 수소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 지정 전략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책분과에서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재생

에너지 확산,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등 전북이 에너지 전환 선도지역으로 자리잡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업기획, 과제발굴,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며, 전북이 국내 에너지정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수소분과에서는 전북연구원 이지훈

연구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방향과 특화단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전북이 추진 중인 수소특화단지 지정의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며, 민간산학연이 협력해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5월,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45개는 국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를 통해 에너지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일자리 창출 위한 협력의 장 마련

시군 · 일자리 유관기관 100여명 참석... 일자리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전주 그랜드 힐스튼 호텔에서 '2025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14개 시군 관계자, 50여개 일자리 유관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과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논의의 장을 열었다. 워크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과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일자리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고용 촉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나경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가 초청 강연자로 나서 '2025년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나 교수는 정부의 주요 일자리 정책과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의견과 논의 내용을 지역 일자리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 민간전문강사 역량 강화교육 실시

재난안전교육 강사 15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신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배 강사들의 경험담과 강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스피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전달력 있는 강의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만호 기자

올해 새롭게 선정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15명은 「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관련 학위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해 지난날 모집절차를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일상생활 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등 5대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익산시 공고 제2024-3154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지 2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 내지 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술

소재지	지목	분묘기수	비고
전북 익산시 월성동 산85-4	임	1기	
전북 익산시 임성동 산67	임	4기	

- 개장사유: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1))건설공사
- 공고기간: 2024. 11. 29. ~ 2025. 1. 8. (40일)
- 공고인: 익산시장
- 사업시행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신고처: - 익산시 건설과(063-859-5589)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재 현장사무실(일성건설 063-918-2301)
-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가 직접 개장 (분묘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 개장(불안)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봉위팔리로 1705-108(자임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 후 10년
- 신고요령: 신고처로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제적등본상 친·인척등 혈연관계인)
- 기타사항: 분묘 개장 공고 이후 동일사업장 내에서 공사진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및 유골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같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익 산 시 장

상속한정승인 공고

망 박공집(1956. 6. 16.생 2024. 7. 13.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병일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의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4년단400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법보좌관 박병일
- ▶피상속인: 망 박공집(1956. 6. 16.생 2024. 7. 13. 사망)
최후주소: 군산시 경포천서길 37-2, 601호 (경양동)
- ▶공고인: 박삼(상속), 박영숙 · 박영임(상속포기)
- ▶공고기간: 2024. 11. 29. ~ 2025. 1. 28.
- ▶상속한정승인 수리일: 2024. 11. 25.
- ▶주소: <청구대리인> 강호달
경상북도 문정시 시청1길 31 강산법무사사무소(모전동)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용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